

日本遠征을 둘러싼 高麗 忠烈王의 정치적 意圖

金甫桃

들어가며

1. 日本遠征의 進行 過程
2. 日本遠征에 대한 고려의 태도 : 日本招諭 및 1차 정벌 시기까지
3. 2차 征伐을 둘러싼 忠烈王의 意圖

나오며 : 結論을 대신하여

들어가며

몽골제국의 등장과 확산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은, 몽골이 고려에도 진출하면서 큰 영향을 주었다. 몽골이 고려에 영향을 끼친 기간은 크게 ‘抗蒙’이라 하던 전쟁시기와 ‘干涉期’라고 하는 전쟁 이후의 시기로 대별할 수 있는데, 1219년에 처음 시작되어, 14세기 중후반까지 거의 200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친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日本遠征’은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몽골이 고려에게 日本의 항복을 받아내도록 하는 招諭를 요구하였다가 招諭가 실패한 이후에 몽골이 고려를 데리고 직접 日本 정벌을 추진한 정복사업이었다.

과거, ‘日本遠征’이라는 사건은 몽골이 주도하고 고려는 여기에 동원된 전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遠征에 고려가 동원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발표자가 주목한 부분은 忠烈王의 입장이 1차 遠征과 2차 遠征 사이에 消極的 回避에서 積極的 加擔으로 바뀌고 있음이 간취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태도 변화에 담긴 忠烈王의 의도,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상한 부호가 있어서 삭제함)

최근의 연구 경향에 따르면 고려가 一방적으로 일본 정벌에 동원되었음을 강조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이 사건에서 고려가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주로 이명미에 의해 천착된 것으로, 고려왕이 몽골제국의 위세를 빌려 왕권을 확립하여 국왕위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日本遠征 추진 조직인 征東行省의 승상을 忠烈王이 겸하게 되면서 국왕의 위상이 확고해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몽골제국에서 부마라는 위상을 확보하게 된 高麗王, 곧 忠烈王의 입장에 따른 ‘助軍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이 두 견해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忠烈王이 몽골제국의 丞相과 駙馬 등의 요소를 통해 정치적 효과를 기대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忠烈王의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1. 日本遠征의 進行 過程

고려가 日本遠征에 참여하게 된 시초는 몽골사신을 안내하여 日本을 招諭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부터이다. 1266년(원종 7) 몽골이 黑的과 弘恩을 사신으로 日本에 파견하면서 고려로 하여금 그들을 안내하게 하자 宋君斐, 金贊 등이 호송을 맡았으나, 거제도에 이르러 풍파가 험하다는 이유로 귀환하였다. 그 다음해에 몽골은 日本 招諭를 고려에 위임하였고 고려는 潘阜를 파견하여 몽골 및 고려의 국서를 가지고 日本에 가게 하였으나, 日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몽골인과 고려인이 日本에 파견되었으나 구류되거나 피살되어 몽골의 日本에 대한 외교적인 招諭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모두 6차례에 걸친 사신 파견이 실패로 돌아가자, 몽골은 일본을 직접 정벌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려에서 전함을 만들기도 하였고, 黑山島를 위시한 고려의 南端에 사신을 파견하여 지형을 정찰하기도 하였다. 또 軍糧의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려에 屯田을 설치하고 1271년(원종 12)에는 그 경영을 위해 屯田經略司를 설치하여 몽골군을 鳳州, 金州, 鹽州, 黃州, 白州, 海州 등 10여 곳에 파견하였다. 고려는 전쟁으로 인한 황폐화 속에서도 몽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크게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74년 6월에 일단 日本 遠征 준비가 끝이 났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東征都元帥府의 忻都和 洪茶丘가 이끄는 蒙漢軍 25,000명을 중심으로 하여 제1차 日本 遠征이 단행되었다. 여기에는 고려도 金方慶을 都督使로 하고 군사 8,000명, 뱃사공 6,700명 그리고 전함 900척을 준비하여 참전하게 되었다. 1차 遠征 당시에 하카다 일대에서의 초반 전투에서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은 승리하였지만, 전쟁의 결과는 거꾸로 패배였다. 이때 김방경이 이끄는 고려군은 하카다 일대에서 勝勢를 타고 있었다. 날이 저물자 忻都是 일단 퇴각할 것을 주장하였고, 김방경은 기세를 몰아 다시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忻都의 주장대로 몽골과 고려의 군대는 일단 퇴각하게 되었다. 잘 알다시피 이때의 퇴각은 연합군의 패배로 연결된 결정이었다. 어찌되었든 몽골의 주장에 따랐다가 1차 遠征은 실패하였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만도 13,500명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고려와 몽골의 지휘부 사이에 戰勢에 대한 판단과 대처를 놓고 견해가 달랐다는 점이다.

제1차 日本遠征이 태풍으로 전쟁을 해보지도 못한 채 실패로 끝나자, 몽골의 쿠빌라이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日本에 宣諭使를 파견하는 한편 전쟁 준비를 계속 지시하였다. 그러다가 1279년(忠烈王 5)에 南宋을 완전히 정복하여 어느 정도 餘力을 갖추게 되자 日本遠征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 때 고려는 남쪽 연변을 침략하기 시작한 왜구의 퇴치 및 몽골제국 내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忠烈王은 日本遠征의 추진기관인 征東行中書省의 丞相에 임명되어(1280), 고려에 주둔한 忻都와 洪茶丘 등과 같은 몽골 將帥들의 횡포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는 또다시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 때 고려는 군사 10,000명, 사공 15,000명, 전함 900척, 군량 11만 석을 위시하여 많은 무기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생산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2차 日本遠征은 고려에 위치한 征東行省 휘하의 고려군, 몽한군 및 중국의 강남지방에 위치한 征日本行省 휘하의 江南軍까지 합세하여 日本을 공격하였으나, 태풍을 만나 10여 만 명의 인명 손실을 낸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2. 日本遠征에 대한 고려의 태도 : 日本招諭 및 1차 정벌 시기까지

여기에서 발표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려의 태도이다. 먼저 日本에게 항복을 권유해야 했던 초기 상황을 보자.

1) 정묘 8년(1267) 봄 정월 宋君斐와 金贊이 몽골 사신과 함께 巨濟島 松邊浦에 도착해서 풍파가 험난한 것을 보고는 두려워서 돌아왔다. 왕이 송군비에게 다시 黑的을 수행하여 몽골로 보내고는, (몽골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조서에서 말씀하신 사신을 인도하여 日本과 우호 관계를 맺는 건에 관해서는, 陪臣 宋君斐와 金贊 등을 보내어 사신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거제현에 도착해서 멀리 對馬島를 바라보다가 큰 바다가 10,000리나 되고 풍량이 하늘까지 닿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위험한데 어찌 上國의 사신을 받들고서 위험을 무릅쓰고 함부로 나아가겠는가? 비록 대마도에 도착한다고 해도 저들은 완고하고 사나워서 예의가 없으니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라도 생기면 장차 어찌하겠는가?’라 생각하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또 日本은 본래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다만 대마도 사람들이 때때로 무역하기 위하여 金州(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시)를 왕래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폐하게서 즉위하신 이후 인자한 덕을 입어서 30년 전쟁 끝에 겨우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어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은이 하늘같이 크니 은혜 갚기를 맹세합니다. 만일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몸과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해가 굵어보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丁卯)八年 春正月 宋君斐·金贊與蒙使, 至巨濟松邊浦, 畏風濤之險, 遂還. 王又令君斐, 隨黑的如蒙古, 奏曰, “詔旨所諭, 道達使臣, 通好日本事, 謹遣陪臣宋君斐等, 伴使臣以往. 至巨濟縣, 遙望對馬島, 見大洋萬里, 風濤蹴天, 意謂‘危險若此, 安可奉上國使臣, 冒險輕進? 雖至對馬島, 彼俗頑獷, 無禮義, 設有不軌, 將如之何?’是以, 與俱而還. 且日本素與小邦, 未嘗通好, 但對馬島人, 時因貿易, 往來金州耳. 小邦自陛下即祚以來, 深蒙仁恤, 三十年兵革之餘, 稍得蘇息, 綿綿存喘. 聖恩天大, 誓欲報効. 如有可爲之勢, 而不盡心力, 有如天日.”] (高麗史 권 26 世家 26, 元宗 8년(1267)正月)

2) 癸丑日, 몽골에서 黑的과 殷弘 등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조서를 보냈다. “이제 그대 나라 사람 趙彝가 와서 말하기를, ‘日本은 고려와 가까운 이웃나라인데 법률과 정치가 제법 훌륭합니다. 한·당 이후로 때때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흑적 등을 日本으로 파견하여 우호 관계를 맺으려 하니, 그대는 사신이 그 땅에 도달하도록 안내하여 동쪽 사람들을 깨우치고 중국의 義를 사모하도록 하라. 이 일은 卿이 책임지고, 풍랑이 험하다는 말로 핑계대지 말고 이전에 日本과 통한 적이 없다고 하며 혹시 그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보낸 사신을 거부할까 염려된다고 핑계대지 말라. 경의 충성심은 이 일로 드러날 것이니 각별히 힘쓰라.” [癸丑 蒙古遣黑的·殷弘等來, 詔曰, “今爾國人趙彝來告, ‘日本與爾國爲近隣, 典章政治, 有足嘉者. 漢唐而下, 亦或通使中國.’ 故今遣黑的等, 往日本, 欲與通和, 卿其道達去使, 以徹彼疆, 開悟東方, 向風慕義. 茲事之責, 卿宜任之, 勿以風濤險阻爲辭, 勿以未嘗通好爲解. 恐彼不順命, 有阻去使爲托. 卿之忠誠, 於斯可見, 卿其勉之.”] (高麗史 권 26 世家 26, 元宗 7년 (1266) 11월 계축 (25))

이상의 사례를 보면, 고려는 외교적으로 日本을 招諭하게 된 상황을 곤혹스러워 하면서, 이 문제를 최대한 회피하려 했다고 생각된다. 만약 日本이 외교적 招諭에 응해서 몽골에 항복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몽골이 전쟁을 해서라도 日本의 항복을 받으려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그 전쟁에 고려가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日本의 반응도 항복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점은 1268년에 고려가 日本으로 보낸 國書 중에 “갑자기 다른 형식의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바다를 건너가면 貴國이 우리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中略> 쿠빌라이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몽골의 사신을 바닷가까지 데려왔지만 바람이 험난하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돌아갔다. 이는 우리 나라가 귀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鎌倉遺文 no. 9845 高麗國牒狀案)을 통해서도 짐작된다.

그리고 이어진 1차 정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는 몽골측에 전쟁 준비를 위한 부담이 고려가 준비하기에 무리한 量임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다.

3. 2차 征伐을 둘러싼 忠烈王의 意圖

2차 정벌 과정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樣相이 나타난다. 이제까지 몽골이 고려에 日本의 招諭를 요구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고려에서 日本 정벌을 먼저 거론하는 것이다. 다음을 보자.

3) 왕이 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日本은 一介 섬에 사는 오랑캐일 뿐인데, 地勢가 험한 것을

밌고 歸順하지 않고 감히 王師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臣이 생각해 보니 (황제의) 德에 報答할 것이 없으니, 원컨대 다시 배를 만들고 곡식을 모아 (日本의) 죄를 물어 토벌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왕은 돌아가서 재상(宰相)들과 깊이 의논한 다음 사람을 보내서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王又奏曰, “日本一島夷耳, 恃險不庭, 敢抗王師, 臣自念, 無以報德, 願更造船積穀, 聲罪致討, 蔑不濟矣.” 帝曰, “王歸與宰相熟計, 遣人奏之.”] (<高麗史> 卷28, 忠烈王 4년 (1278) 7월 甲申(3))

忠烈王은 쿠빌라이에게 고려가 먼저 日本을 정벌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가 쿠빌라이에게 日本 정벌 사업을 권유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 대화는 당장 고려-몽골 사이에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金方慶誣告事件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몽골이 원하던 日本 정벌에 대해 고려가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수 있다. 어찌되었든 이 言辭의 속에는 日本정벌이라는 사업을 고려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며, 가능한 부담을 피하고자 했던 1차 정벌 때까지와는 가장 큰 차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日本 정벌을 둘러싸고 1차까지와 2차 때의 고려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제 이 점을 살피고자 한다. 2차 정벌에 忠烈王이 이전보다 적극성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대체로 고려가 몽골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洪茶丘 등 고려에 있는 몽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파악한다. 물론 이러한 점을 부정할 수 없으며, 크게 보아 이러한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당시 고려측의 정치적 배경은 되나, 태도 변경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국왕의 입장에서 고려-몽골이라는 국가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도 顧慮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볼 때, 바로 1차 정벌과 2차 정벌을 준비한 주체인 고려국왕의 차이가 보다 직접적인 이유라 생각된다. 원종과 忠烈王은 父子之間으로, 100년에 걸친 武臣政權 때문에 왕권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려는 지향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몽골을 이해, 수용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다음의 에피소드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4) 西北面에 왕이 舉動하여 公主를 맞이하였다. 順安公 棕, 廣平公 諶, 帶方公 激, 漢陽侯 儂, 平章事 兪千遇, 知樞密院事 張鎰, 知奏事 李汾禧, 承宣 崔文本·朴恒, 上將軍 朴成大, 知御史臺事 李汾成이 따라 갔다. (a)왕(忠烈王; 필자)이 분희 등에게 辮髮하지 않은 것을 꾸짖으니, 대답하기를, “신 등이 변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몽골 풍속에 정수리에서 이마까지 그 모양을 모나게 하고 가운데만 머리카락을 남기고 깎는데, 몽골말로 ‘케구르(怯仇兒)’라고 하였다. 왕은 원 나라에 들어가 조회할 때에 이미 변발을 하였으나 國人은 아직 하지 않았으므로 꾸짖은 것이다. 뒤에 송승례와 정자여가 변발하고

조회하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따랐다. 이전에 인공수가 원종에게 원나라 풍속을 따라 복색을 고치기를 권하자, (b)원종이 “나는 차마 조종의 법을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 나 죽은 다음에 경들이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였다. [幸西北面，迎公主。順安公悰廣平公諱帶方公激漢陽侯儂平章事俞千遇知樞密院事張鎰知奏事李汾禧承宣崔文本朴恒上將軍朴成大知御史臺事李汾成從行。王責汾禧等不開剃，對曰，“臣等非惡開剃，唯俟衆例耳。”蒙古俗，剃頂至額，方其形，留髮其中，謂之怯仇兒。王入朝時已開剃，而國人則未也，故責之。後，宋松禮鄭子璵開剃而朝，餘皆效之。初，印公秀勸元宗，效元俗，改服色，元宗曰，“吾未忍遽變祖宗之法。我死之後，卿等自爲之。”] (高麗史節要 卷19 忠烈王 卽位年(1274) 10月)

위는 1274년에 제국대장공주가 고려로 입국할 때 忠烈王이 맞이하기 위해 나갔다가, 몽골 풍습에 따른 헤어스타일인 변발을 놓고 생긴 일화이다. (a)와 (b)는 辮髮에 대한 원종과 忠烈王의 입장을 대비시켜 보여준다. (b)에서 보는 것처럼 원종은 변발을 비롯해 복색을 몽골식으로 고치는 것을 못하겠다며 신료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하라고 말하였다. 반면, (a)에서 忠烈王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변발을 하고서는 아직 변발을 하지 않은 李汾禧를 책망하고 있다. 이는 忠烈王이 아버지인 원종보다도 적극적으로 몽골의 영향력을 수용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2차 정벌을 제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忠烈王의 언급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忠烈王은 정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7가지 요청을 하였다.

5) 왕이 7가지 항목을 요청하였다. “1. 耽羅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군대를 東征軍에 보충할 것, 2. 高麗軍과 漢軍을 줄이고 闍里帖木兒(체리테무르)로 하여금 몽골군을 더 징발하여 출정할 것, 3. 洪茶丘의 職任을 더 높이지 말고 그가 성공하기를 기다려서 賞을 줄 것, 또 闍里帖木兒로 하여금 臣과 함께 日本 遠征에 관한 일을 管掌하게 할 것, 4. 우리나라의 軍官에게 모두 牌面을 하사해 줄 것, 5. 漢地의 바닷가 사람들을 梢工과 水手로 충당할 것, 6. 按察使를 파견하여 백성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할 것, 7. 신이 직접 合浦(지금의 昌原 馬山)에 가서 군사와 말을 점검하여 보낼 것” 이었다. 황제가 “건의한 것들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王以七事請, “一, 以我軍鎮戍耽羅者, 補東征之師, 二, 減麗漢軍, 使闍里帖木兒, 益發蒙軍以進, 三, 勿加洪茶丘職任, 待其成功賞之, 且令闍里帖木兒, 與臣管征東省事, 四, 小國軍官, 皆賜牌面, 五, 漢地濱海之人, 并充梢工水手, 六, 遣按察使, 廉問百姓疾苦, 七, 臣躬至合浦, 閱送軍馬.” 帝曰, “已領所奏.”] (高麗史 권 29 世家 29, 忠烈王 6년(1280) 8월 乙未(23))

6) 우리나라의 군인과 백성은 일찍이 珍島, 耽羅, 日本 3곳에서 여러 번 戰功을 세웠는데도 아직 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옆드려 바라건대 이전의 전공을 조사해서 각각 牌面을 하사하여 후대

사람들을 권장하기를 바랍니다. 군인 1,000명마다 總管과 千戶 각 1명, 總把 각 2명이며, 아래와 같이 이름을 열거합니다. 원하건대 上將軍 朴之亮, 大將軍 文壽, 羅裕, 韓希愈, 趙圭, 親從將軍 鄭守琪, 大將軍 李伸, 朴保, 盧挺儒, 安社 등 10명을 總管으로 삼고, 大將軍 趙抃, 將軍 安迪材, 許洪材, 金德至, 徐靖, 任愷, 金臣正, 李廷翼, 朴益桓 등 10인을 千戶로 삼고, 中郎將 柳甫, 金天祿, 李臣伯, 辛奕, 崔公節, 呂文就, 安興, 李淳, 金福大, 車公胤, 李唐公, 郎將 朴成進, 高世和, 中郎將 宋仁允, 郎將 玉環, 桂富, 金天固, 李貞, 徐光純, 咸益深 등 20명을 總把로 삼기 바랍니다. [小國軍民, 曾於珍島·耽羅·日本三處, 累有戰功, 未蒙官賞, 伏望追錄前功, 各賜牌面, 以勸來効. 每一千軍, 總管千戶各一, 總把各二, 花名, 抄連在前. 請以上將軍朴之亮, 大將軍文壽·羅裕·韓希愈·趙圭·親從將軍鄭守琪·大將軍李伸·朴保·盧挺儒·安社等十人爲總管. 大將軍趙抃, 將軍安迪材·許洪材·金德至·徐靖·任愷·金臣正·李廷翼·朴益桓等十人爲千戶, 中郎將柳甫·金天祿·李臣伯·辛奕·崔公節·呂文就·安興·李淳·金福大·車公胤·李唐公, 郎將朴成進·高世和, 中郎將宋仁允, 郎將玉環·桂富·金天固·李貞·徐光純·咸益深等二十人爲總把.] (高麗史 권 29 世家 29, 忠烈王 6년 (1280) 11월 己酉(11))

위의 두 기록을 보면, 忠烈王은 고려 將帥에게 몽골 官職을 요청하고 있고, 또 대상 후보자를 제시하고도 있다. 이처럼 高麗軍 將帥에 대한 萬戶 임명, 牌面의 수여 등을 忠烈王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는 몽골 官職 등의 수여가 고려왕의 요청 아래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忠烈王의 의도가 강하게 담긴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忠烈王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선 그는 요청 사항 중 洪茶丘의 승진을 제한하고 공적을 기다려서 포상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서, 洪茶丘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겉으로는 몽골과의 동일한 관함을 사용하여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실상 고려군을 몽골군에서 분리하여 지휘상의 혼선을 방지하여 실제로는 高麗軍 指揮府의 人選 과정에 자신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

이러한 忠烈王의 요청을 쿠빌라이는 모두 수용하였으며, 고려에 虎符 등을 내려주었다. 이에 忠烈王은 김방경을 비롯한 고려의 將帥들에게 몽골의 官名과 印章을 다음과 같이 내려줄 수 있었다.

7) 元 황제가 왕을 책봉하여 開府儀同三司 中書左丞相 行中書省事로 책봉하고 印信을 下賜하였다. 또 金方慶을 中奉大夫 管領高麗軍都元帥로, 知密直司事 朴球·金周鼎을 召勇大將軍 左·右副都統로 임명하고 모두 虎頭金牌와 印信을 하사하였다. 趙仁規를 宣武將軍 王京斷事官 兼 脫脫禾孫으로 임명하여 금패와 인신을 하사하였고, 朴之亮 등 10명을 武德將軍 管軍千戶로 임명하여 금패와 도장을 하사하였다. 趙抃 등 10명을 召信校尉 管軍總把로 임명하여 銀牌와 인신을 하사하였고 金仲成 등 20명을 忠顯校尉 管軍總把로 임명하였다. [帝冊王爲開府儀同三司中書左丞相行中書省事, 賜印信. 又以金方慶爲中奉大夫管領高麗軍都元帥, 知密直司事朴球·金周鼎爲召勇大將軍左右副都統, 並賜虎頭金牌·印信. 趙

仁規爲宣武將軍王京斷事官兼脫脫禾孫，賜金牌·印信，朴之亮等十人爲武德將軍管軍千戶，賜金牌及印，趙抃等十人爲佻信校尉管軍總把，賜銀牌及印，金仲成等二十人爲忠顯校尉管軍總把.] (高麗史 권 29 世家 29, 忠烈王 6년 (1280) 12월 辛卯(23))

그리고 金方慶, 朴球, 金周鼎은 1281년 3월 임자에 合浦로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고 있어, 이때의 몽골 官職 임명이 日本 정벌을 위한 편성 과정의 所産임을 알 수 있다. 곧 忠烈王이 고려의 將帥들에게 몽골의 軍官職을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것이 수용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몽골 官職을 지닌 고려의 將帥들이 2차 日本 정벌에 참여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때 忠烈王이 官職을 몽골에 요청한 의도는 몽골군과 동일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데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樣相과 관련하여서는 忠烈王이 萬戶 등 몽골의 官職이나 金牌 등 지위를 ‘하사’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군통수권 등을 확립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忠烈王은 몽골 官職에 대한 일종의 인사권 행사를 통해 통수권 장악, 나아가 그들의 충성심까지 확보하였다. 곧 만호 등의 지위의 임면이나 여탈 등 인사권을 통해 국왕의 신료에 대한 장악력을 높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征東行省의 존재이다. 征東行省이 몽골이 日本 정벌을 위해 설치한 軍司令部 성격의 軍前行省이라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실이다. 1280년에 2차 정벌의 준비 과정에서 설치된 征東行省은 이번에는 고려에 두어졌고, 忠烈王이 征東行省의 승상으로 임명되었다. 곧 몽골은 1280년 6월 무렵에 日本 정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1280년 10월에는 忠烈王을 征東行省의 左丞相, 같은 해 12월에 右丞相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日本 遠征이 끝난 1283년 6월에는 다시 忠烈王이 征東中書省의 左丞相으로 임명되어서는 아타카이 [阿塔海]와 함께 征東行省의 일을 함께 처리하였다. 이제 忠烈王은 征東行省 내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자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의 官職만을 지닌 대다수의 고려 관인들에게 고려왕은 유일한 명령권자이자 일국의 지배자라는 위상을 무리없이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행성관 등 몽골의 관제로 편입된 고려 출신 관인들에게 고려왕은 ‘유일한’ 군주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몽골 황제의 위상과 영향력이 더욱 컸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왕은 몽골 관료체계 내의 고위직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행성의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行省의 丞相이라는 지위가 절실하였다. 이를 통해 最終命令權者는 形式上 몽골의 皇帝이지만, 高麗王이 萬戶, 總管 등 軍官을 비롯한 몽골 官職에 고려 관료들을 推薦하여 任命될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려왕은 몽골 官職자인 고려인과 君臣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2차 日本 정벌에 적극적이었던 忠烈王의 政治的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나오며 : 結論을 대신하여

忠烈王은 몽골 황제의 駙馬이면서 征東行省의 丞相으로, 한 몸 에 高麗國王, 駙馬, 丞相의 地位를 지니고 있었다. 이를 통해 그는 고려 내에서, 그리고 몽골 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忠烈王은 몽골의 日本 征伐, 특히 2차 征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忠烈王의 의도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후 나얀의 반란 과정에서 평양으로 나아가고, 쿠빌라이에게 助軍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몽골에서 차지하는 왕실의 일원이라는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 다시 말해서 몽골에 의존하여 왕권의 위상을 확보, 강화하려던 忠烈王의 선택은, 고려의 정치적, 외교적 스탠스를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